



금강산

9

2025년

루게 제 433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5 ISSN 1727—9062



표지: 경축의 축포

조국해방 80돐을 맞으며 김일성광장에서 청년 학생들의 야회가 진행되었다.

아름다운 빛갈을 내뿜으며 터져오르는 축포탄들은 경축의 밤을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국해방 80돐을 맞으며

2 || 조국해방 80돐 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6 || 조국해방 80돐을 경축하는 예술공연 성황리에 진행

8 || 조국해방 80돐을 뜻깊게 경축

12 || 창조와 변혁의 진폭이 커질수록 중시되는 교육

일화

14 || 위민헌신의 나날에

15 || 일생 무료로 배운다

16 || 자주로 빛나는 공화국의 70여년

반향

18 || 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19 ||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민족성

승리와 영광의 80년

20 || 조선로동당, 그 생명의 뿌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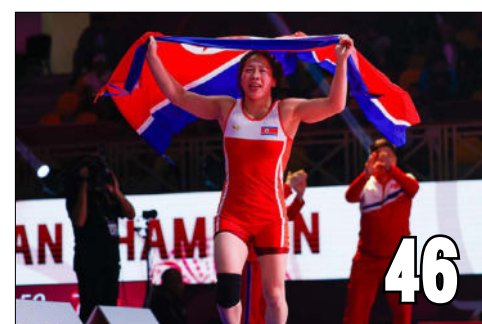
21 || 유리꽃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22 ||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고국방문

24 || 묘향산에서 보낸 1박2일



인상기

27 || 부모님들의 뒤를 이어

27 || 근본을 잊지 않게

27 || 잊을수 없다

조국의 품에 안겨

28 || 동화의 세계속에서 40여년

고향소식

30 || 여기가 우리 사는 고향입니다

34 || 선진적인 경영방식으로

38 || 건설장들에 더 많은 마감건재를

40 || 인삼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추진

42 || 선진적인 교육방법과 교육기술들을 탐구도입하여

43 || 꼬마무용수들이 자라난다

44 || 고려치료에 능한 의사

46 || 아시아패권을 쥔 레슬링선수

48 || 세계지질공원 백두산지구 (1)

민족의 향기

50 || 룡두지짐 만드는 풍습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52 || 고국원왕릉

력사인물

54 || 이름난 서예가 한석봉

력사이야기

55 || 평양의 10장사

56 || 동해명승 총석정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조국해방 80돐 경축대회 성대히 진행



조국해방 80돐 경축대회가 8월 14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새 조선의 주인된 인민의 감격과 환희, 건국과 국권수호의 80성상에 빛나는 불후할 혁명업적과 기적의 년대들이 응축되어 숭엄히 안겨오는 개선문 광장은 인민의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동지께서 경축대회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장에 도착하시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뜻깊은 8월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가장 강대하고 존엄높은 나라로 세기의 정상에 올려 세워주시고 인민의 리상실현을 위한 력사적대업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끄시는 주체혁명의 걸출한 령도자를 우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학생소년들이 향기그득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 바체슬라브 월로진동지에게 학생소년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축대회에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의 유자녀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을 비롯한 시안의 일군, 근로자, 청년학생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축하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국가회의대표단과 문화성 대표단 성원들,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 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단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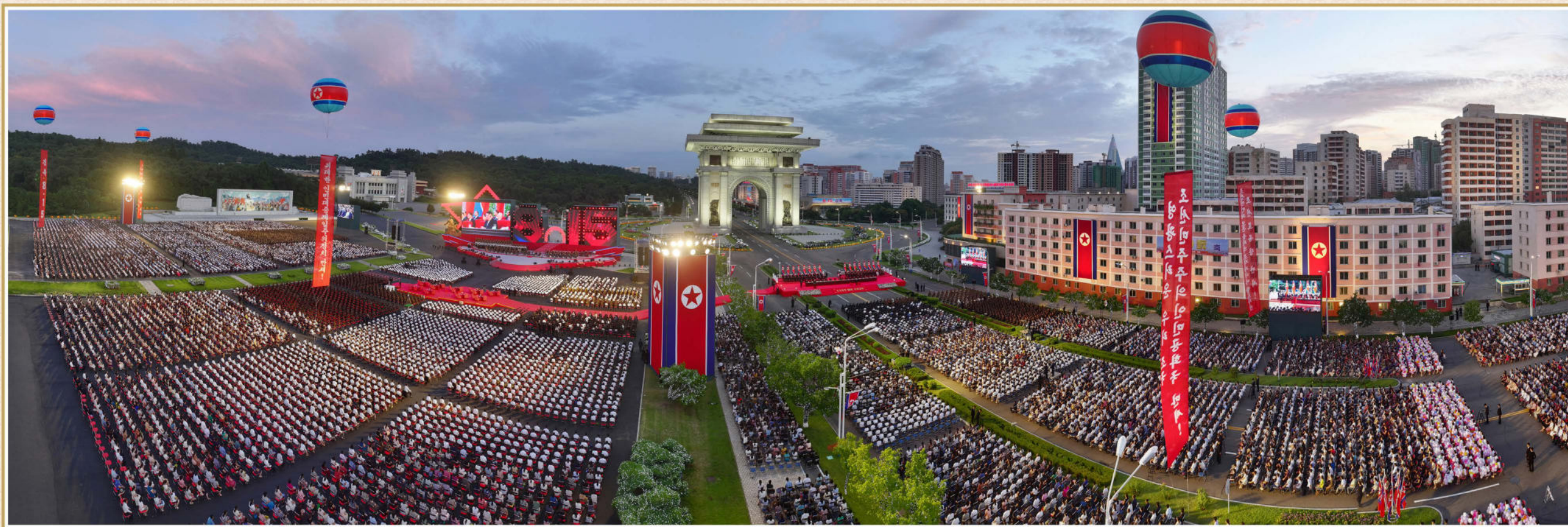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경축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오늘 우리는 장장 한세기에 이른 영광스러운 조선혁명사의 고귀한 첫 승리이며 반만년력사의 획기적사변인 조국해방 80돐을 맞이하고있다고 하면서 망국민의 수치와 불행을 강요당하던 인민을 항일구국애로 불려일으키시여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국권수복의 세기적대업을 달성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영원 불멸할 영광과 최고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우리 국가는 오늘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반적인 국력을 더욱 증진시켜나가는 거창한 진군의 새 모습을 세계앞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인민이 있고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구현된 우월한 정치제도가 있으며 애국으로 단결된 힘이 있기에 우리 국가의 활기찬 룡성은 계속될것이며 혁명선렬들이 념원하던 공산주의는 이 땅우에 현실로 펼쳐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우리 혁명군과 어깨걸고 싸운 소련군장병들의 숭고한 국제주의 정신과 무훈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공동의 위업을 위한 싸움에서 피로써 맺어진 단결과 우의가 제국주의의 횡포한 전횡과 침략책동을 짓부시는 21세기 전장에서 높이 발휘되고 위력한 동맹관계로 승화발전되고있는것은 조로친선의 영원한 생명력에 대한 뚜렷한 립증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최룡해동지는 어떤 곡경속에서도 일떠설수 있는 정신적유산을 마련해주고 백승에로의 진로를 포석해준 혁명선렬들이 우리를 끝없이 고무하며 멈춤없는 전진으로 떠밀고있다고 하면서 모두다 위대한 애국의 리념,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영원무궁한 부강과 통성을 위해 계속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로씨야연방 국가회의 의장 바체슬라브 월로진동지가 발언하였다.

그는 성대한 경축대회에 참가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선해방 80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께 로씨야연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쭌동지가 보내여온 축하편지를 대독하였다.

그는 로조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로씨야

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들을 철저히 리행하며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하여 노력해나갈 의지를 표명하면서 조선인민의 앞길에 번영과 행복만이 있기를 축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신생과 발전의 성스러운 행로를 높이 떠올리는 경축의 오늘은 인민의 운명전환을 안아온 불멸할 정신과 수십 성상의 간고한 항쟁사와 함께 장장 80년을 이어온 새 조선의 력사가 어떻게 존엄과 영예의 절정에 자리매김할수 있었는가에 대한 시대의 조명이자 긍지높은 총화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자주적존엄을 되찾은 조국해방위업의 혁명적 성격과 정치적의의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기 조국의 승리와 영광에 바쳐진 생을 가장 값있고 행복한 생으로 간주하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위대한 인민에 대한 더없는 경의심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처럼 정의롭고 강인하며 자존심이 센 인민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하며 그렇듯 애국적이고 그렇듯 자존심이 강한 인민이 건설하고 떠받드는 국가는 영원히 강대하고 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존엄과 영광의 위대한 력사는 천년만년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강국을 위하여, 후손만대 길이 빛날 사랑하는 우리 국가의 무궁한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계속 굴함없이 우리앞의 도전들을 이겨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는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받들며

자기 시대, 자기 세대의 력사적사명과 의무에 무한히 충실할 전체 참가자들의 드팀없는 의지가 열광의 환호성으로 터져올라 경축의 밤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축대회는 《인터나쇼날》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국해방 80돐 경축대회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국가의 성스러운 력사를 긍지높은 승리와 기적의 년대들로 떠받든 충성과 애국의 전통, 불굴의 개척정신과 영웅적기개를 더욱 백배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우리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파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 * *

조국해방 80돐을 경축하는 예술공연 성황리에 진행



조국해방 80돐 경축공연이 8월 14일 개신문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가회의 의장 바체슬라브 월로진동지와 함께 관람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도당책임비서들,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의 유자녀들, 성, 중앙기관,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혁명학원 원아들, 평양 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로씨야련방 국가회의대표단, 문화성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함께 보았다.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이 자리를 같이하였다.

경축공연의 서막을 이채롭게 장식하며 항공륙전병들의 집체강하기교가 있었다.

공연무대에는 전인민적인 수령송가들과 혁명가요들, 애국주의주체의 명곡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숭엄한 회억이 흐르는 무대에 조선혁명사의 첫페이지에 아로새겨진 항일선렬들의 영웅적군상을 그려주는 혁명가요들과 항일전의 노래들이 울려

퍼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절대적 존엄과 영광만을 더해줄려는 강렬한 지향이 뚫어넘치는 명곡들에 관람자들은 열정적인 호응의 박수를 보내었다.

친선의 사절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로씨야 노래편곡이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부흥강대한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공동위업 실현의 길에서 더욱 깊어지고있는 친선단결의 정으로 충만된 공연은 로씨야련방 국가로 끝났다.

조국해방 80돐 경축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 *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조국해방 80돐을 뜻깊게 경축

온 나라 인민이 조국해방 80돐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하가 뜨겁게 굽이쳤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선 군중들은 조국해방성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여 우리 혁명의 백승의 전통을 창조하시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대성인의 위대한 한생을 경건히 되새기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전설적영웅을 영광의 단상에 높이 모신 감격의 열광, 평양이 낳은 희세의 천출위인을 우러러 터친 40만의 우렁찬 환호성이 진감하던 80년전 그날의 크나큰 걱정을 안고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이 개선문으로 향하였다.

김일성광장에서 조국해방 80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 진행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해나가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시위행진 진행

대성산혁명렬사릉, 신미리애국렬사릉, 해산혁명렬사릉 등을 찾은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억척의 신념과 자생자결의 의지를 지니고 백두의 설한풍을 맞받아 력사의 생눈길을 헤치며 혁명을 개척하고 전진시킨 1세대 혁명가들의 숭고한 넋에 경의를 드리었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우고 자주강국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력사의 날을 전인민적대경사로 성대히 기념하는 걱정과 환희가 뜨겁게 끓이치는 속에 조국해방 80돐 경축연회가 15일 목란관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태성동지가 연설하였다.



조국해방 80돐을 맞으며 새로 개건된 빙상관 개관식 및 빙상회거모범출연과 기관차탐파 러명탐사이의 해볼킵 남자축구경기 진행



연설자는 항일전의 20성상과 건국의 초행길에 세워진 리념과 정신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며 헌신적인 애국투쟁과 위대한 인민의 나라를 세계에 떨칠 훌륭한 결과물로써 강국건설의 새 전기를 줄기차게, 빛나게 써나갈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조국해방 80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1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조국에 대한 노래》,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우리는 조선사람》 등의 노래들이 울려 퍼지는 야회장은 영웅적투쟁과 창조로 이어진 80년력사의 분수령에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해방절을 환희롭게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긍지와 랑만으로 설레이었다.

장쾌한 축포성과 함께 화려한 빛갈을 내뿜으며 터져오르는 형형색색의 축포탄들은 경축의 밤을 더욱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뜻깊은 조국해방 80돐을 맞으며 빙상관 개관식 및 빙상회거모범출연과 우표전람회, 미술전람회가 진행되었다.

평양시,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각지 근로단체 조직들이 진행한 경축모임, 웅변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여 도탄에 빠졌던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영광혁명사적지, 국사봉혁명전적지를 비롯한 항일의 전구들을 찾은 함경남도, 남포시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투사들이 지녔던 강의한 혁명정신, 빨찌산정신을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로 간직하고 혁명의 새 승리를 앞당겨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수도 평양과 지방에서는 다채로운 경축공연들과 무도회들이 진행되었다.

우리 국가의 발전행로에 뜻깊게 아로새겨진 조국해방 80돐을 경축하며 전체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영원무궁한 부강과 통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글 변진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각 도(직할시)들에서 조국해방 80돐경축 보고대회와 경축모임이 진행되었다.



창조와 변혁의 진폭이 커질수록 중시되는 교육

우리 나라에서 교육사업은 어느 시기, 어떤 단계에서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의 공력을 들여야 할 제1의 국사이며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로 간주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교육발전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힘을 넣고있다. 그러나 교육사업을 어떤 위치에 놓으며 여기에 얼마만한 투자를 집중하는가 하는것은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사업을 나라의 제일중대사로, 국가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차대하고 전략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교육부문을 그 어느 부문보다 최우선시하고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빛나는 실체들이 일떠서고 수도건설의 전성기가 가속화되는 속에서도 교육자들과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사업조건과 학습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교육기자재들과 교구비품들, 학용품 생산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드팀없이 추진되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340여개 학교와 780여개 분교, 150여개 유치원들이 본보기수준으로 신설 및 개건되었다.

지난해 수해지역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모두 평양에 데려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보육과 교육을 맡아 제공하는 특별조치가 취해진데 이어 큰물피해를 가시고 새롭게 일떠선 교정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현대적인 교구비품과 교육설비, 체육기재들은 물론 수많은 악기들까지 보내준 사실은 우리 국가가 교육부문에 얼마나 큰 공력을 들이는가 하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준다.

하다면 혁명과 건설을 위한 과업이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한 오늘 교육사업이 한치의 드팀도 없이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집행되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나라의 교육토대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단독의정으로 토의하도록 하시고 우리 당은 창조와 변혁의 진폭이 커질수록, 부과된 혁명과제가 거창할수록 교육을 항상 선차에 놓고 우선권을 부여할것이라는데 대하여 확언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는 교육사업을 그 어떤 천사만사가운데서도 언제나 제일 첫자리에 내세워 조국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시려는 철석의 의지가 비껴있다.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교육부문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2012년 9월 25일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되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아가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언제인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각이한 나라들의 교육기간과 경제성장률의 호상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기간을 1년만 늘어도 경제성장률이 9%이상 높아진다는 견해를 발표한적이 있다. 이것은 교육기간을 늘이면 늘일

수록 그만큼 인재양성과 경제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투자가 많이 드는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국에서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사업에 국가적투자를 우선적으로 집중하였으며 결과 2014년에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이 집행되기 시작하였고 2017년부터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이 과학교육의 해로 정해지고 2018년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전사회적으로 교육중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었다.

교육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대 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졌으며 온 나라에 교육부문을 최우선시하는 사회적기풍이 차넘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2021년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 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을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으로 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중대조치가 취해지고 각 도들에 학생교복 공장, 학생신발공장들이 일떠서 전국의 학생들에게 학생교복과 가방, 신발을 공급하는 정연한 체계와 질서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제2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재집필에서의 혁신, 교육내용과 방법의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가 적극 추진되고 각 도들에서 교원대학건설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해마다 많은 학교와 유치원들이 본보기수준으로 신설되거나 개건되고 교육과학연구중심기지인 교육연구원이 새로 일떠섰다.

후대들을 위한 교육사업은 설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단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되며 이 사업에서는 단 한치의 에누리도 몰라야 한다는것, 그 어떤 극난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제일먼저, 제일 힘있게, 제일 완벽하게 내밀어야 할 사업이라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절대의 신조이다.

이것은 오늘 조선로동당의 교육중시사상과 정책의 근본바탕으로 되어 사회주의교육의 화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있다.

그 화원속에서 마음껏 지식을 배우고 재능을 키워온 새세대들이 놀라운 과학기술성과들로 조국의 명예를 떨치고있으며 자립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는데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고 나라의 제일가는 국력으로 되고있다.

정녕 교육사업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교육부문에 그렇듯 최대의 정성과 품을 들이는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언제나 끝없이 밝고 창창한것이다.

글 김성경



위민천신의 나날에

제일 값있는 사업

2012년 10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교육사업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교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교원들은 후대들을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들이라고 하시였다.

정답게 불러주신 부름

2016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전연에 위치한 어느한 섬방어대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군인들의 생활과 전투동원준비상태를 료해하시고 포실탄사격훈련도 지도하시며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던 그이께서는 고지를 내리시다가 문득 한 일군에게 방어대에 분교가 있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뜻밖의 물음임에 그는 그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채 섬분교가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섬에 분교가 있다는데 웃단위 일군들이 후대관, 미래관을 바로가지고 교육사업실태를

그러시면서 교원들이 교단에서 몇시간 강의를 한다고 하여 그 무엇이 당장 생기는것은 아니지만 교육사업은 조국과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제일 값있는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교원들의 생활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무엇이 하나 생겨도 교원들의 생활문제에 먼저 신경을 쓰고 그들에게 차례지게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정상적으로 료해하여보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따듯이 이르시였다.
그이의 의도를 뒤늦게야 깨닫게 된 일군들이 몇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섬에 분교가 있는것은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아뢰며 섬분교들에 자원진출하는 교원들이 많은데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지금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섬분교들에 자원진출하는 교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할수 있다고, 외진 섬에서 후대들을 위하여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는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주고 평가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의 요구

2017년 2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평양초등학교를 돌아보시였다.
학원이 원아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훌륭한 배움터로 꾸려진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커다란 만족속에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원아들의 교육교양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부문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국가중대사이며 국가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차대하고 전략적인 문제이라고

하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사소한것에 이르기까지 소홀히 하는 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국가적으로 교육부문을 최우선시하는 기풍, 기강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당의 요구, 혁명의 요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하신 이날의 뜻깊은 가르치심은 교육사업이야말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 있어서 최대의 중대사임을 가슴속에 새겨안게 한 고귀한 지침이였다.

일생 무료로 배운다

- 교육성 국장 동철민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기자: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교육발전에 국가적인 힘을 넣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교육사업을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여기고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있다고 본다.
국장: 그렇다.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공부시키는 일생교육, 전민교육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전에 전민교육의 토대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7년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전민교육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여 학교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병진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 모든 사람들이 일생 아무런 걱정없이 배우고있다.
기자: 우리 나라에서 온갖 형태의 교육들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있는데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싶다.
국장: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과 고등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등 온갖 형태의 교육들은 무료로 진행되고있다.
의무교육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1959년 3월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할데 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여 그해 4월 1일부터는 전반적무료교육제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수업료만을 폐지한것이 아니였다.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고있다. 이것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변함이 없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초등학원과 애육원들을 도처에 세워 전재교아들을 국가의 부담으로 키웠고 고난의 행군으로 력사에 기록된 지난 세기 90년대에도 새 교복과 학용품의 공급을 멈추지 않았다.
1975년 9월부터 무료교육에 기초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법령

을 채택하였다.
사실 조국앞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 학제를 1년 더 늘여 새로운 교육제도를 실시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기간 국가가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편물과 교구비품, 실험실습에 필요한 모든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있으며 학생들의 과외활동과 사회정치활동, 답사, 견학, 야영을 위한 비용까지도 부담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형태의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우리 인민은 의무교육을 마치고 자기 소질과 재능에 따라 받는 고등교육도 무료로 받고 있는것은 물론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들인 공장, 농장, 어장대학에서도 무료로 배우고있다.
현장에서 받는 원격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기자: 무료로 배우는것은 물론 국가가 대학생들과 여러 제1중학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있지 않는가.
국장: 대학생들뿐 아니라 평양제1중학교, 동평양제1중학교를 비롯한 제1중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다.
기자: 정말 국가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것은 물론 매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안겨주고 있는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고있지 않는가.
국장: 유네스코에서는 1965년에 일생교육방안을 내놓고 2015년까지 세계적범위에서 전민교육, 일생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제기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왔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에 왔던 유네스코대표는 전반적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는 조선은 유네스코가 제기한 2015년까지의 목표를 이미 오래전에 실현한 유일한 나라이며 그야말로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 * *

자주로 빛나는 공화국의 70여년

자주의 길은 정의롭고 보람있는 길이지만
바란다고 누구나 선택하고 갈수 있는 탄탄대로가
아니다. 오직 탁월한 령도자만이 국가와 인민을
자주의 한길로 이끌어갈수 있다는것이 오늘
공화국의 70여년의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자주는 우리 공화국이 지니고있는 높은 존엄
의 상징이다.

돌이켜보면 건국 이래 공화국은 언제나 자기
의 주권과 확고한 결심에 따라 나아갈 앞길을
자주적으로 선택하였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자력으로 지켜왔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개선연설을
하시던 력사의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환호하는 수십만의
군중들에게 해방된 조선에 민주주의적인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는것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만드는 길이라고 하시며 각계각층
인민들은 누구나 다 애국적열성을 발휘하여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호소하시였다.

그이의 절절한 호소는 그대로 자주적인 새 민주
조선의 출발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해방후 건국의 초행길에는 각이한 주의주장들이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
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인민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시였다.

국호와 국기, 국장도안으로부터 새로 서게 되는
정권의 형태 등 모든것이 독창적으로 해결되였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과 지배, 사대와 의존이
없는 새형의 자주독립국가로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과
국가발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토지개혁법령, 중요산업국유화법령, 남녀
평등권법령발포 등 제반 민주개혁들이 실시되어
인민은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부강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1950년대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은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로 세계 《최강》을 떠들던
침략자 미제를 타승하는 전승신화를 창조함으로
써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삶을 사수하였다.

전후복구건설에서도 영웅조선의 기상을 힘있
게 떨쳤으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 전진하여
단 14년만에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웠다.

1980년대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
되는 복잡다단한 력사의 광풍속에서도 공화국은
자주의 기치높이 사회주의한길로 드림없이 전진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90년대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우리의 《로선변화》와
《체제붕괴》에 대하여 떠들어댔 때 선군의 기치
를 높이 추켜드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였다.

공화국은 자위적국방공업의 힘을 비축하였고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주체공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였다.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 국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해 더욱 높이 떨쳐지고
있다.

우리 혁명의 전 력사적으로정이 다 그러하지만
주체혁명의 새시대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가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승리의 나날이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돏경 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자주를 조선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천명하시였으며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와 최고인민
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자주의 혁명로선과
자력갱생의 전략을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것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
부동한 정치로선으로 재규정하시였다.

공화국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가증되는 온갖 도전과 장애를 자강력증대의
기회로 반전시키며 강위력한 주체병기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였으며 거창한 대건설사업들을
통이 크게 벌리며 힘차게 전진해나갔다.

오늘 공화국은 사회주의전면적발전, 국가부흥
의 새시대를 펼쳐가고있다.

온 세계를 동란속에 몰아넣은 병마와 련이어
닥쳐든 자연재해도 이겨내며 모진 고난속에서도
착실하게, 확실하게 전진하고있다.

도처에 인민의 보금자리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새시대 지방발전정책과 더불어 방방곡곡에 지방
공업혁명의 실체들이 련이어 떠오르고있다.

최강의 국가방위력이 비축되고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까지 마련되어
공화국은 존엄높은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
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말 2025년
의 당 및 국가사업발전방향과 방략을 책정하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국위
선양,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주권적권리수호투쟁
을 파감히 벌리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국익을
존중하는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관계
발전을 적극 도모해나가는데서 나서는 파업들을
명시하시였다. 이로써 우리 공화국은 세계에
자주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자기의
불변의 의지를 다시금 각인시켰다.

그것은 바로 자주가 우리 공화국의 존재방식
이며 자주에 번영과 발전에 대한 우리 인민의 념원을
 실현할수 있는 최상의 방도가 있기때문이다.

참으로 공화국의 70여년의 력사는 자주, 자립,
자위의 길이야말로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진리로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지난날에도 그러했던것처럼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주의 사상과 정신을 억척의 지지점으로 하여
자기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해갈것이다.

글 김성경

조선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떨치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고 세계 진보적인류는 찬사를 보내고있다.

민주공화국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건국의 시조이시며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대원수께서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여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을뿐 아니라 단기간 내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역사적과업수행을 성과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은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현실은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주의 길로 나갈 때만이 자기의 주권을 고수하고 사회발전을 담보할수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주권국가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당당히 행사하며 자기식의 정확한 발전행로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는 나라는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동방의 첫 인민민주주의국가로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공화국은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행로에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고수하여 왔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본보기를 마련하신 김일성주석의 령도를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투철한 자주리념과 비범한 정치실력으로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시였으며 조선을 사회주의보루, 자주의 성새로 굳건히 다지시였다고 말하였다.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진보적나라들의 본보기가 되어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새겨왔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더욱 강화발전될것이다. 조선인민이 부강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부리사장은 현재 세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위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며 렬강들의 간섭을 배격해온 조선은 견결한 반제자주적립장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특출한 역할을 하고있다, 조선의 지도력은 제국주의와 그 하수인들의 위협속에서도 공화국을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 핵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날로 높아졌다고 격찬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통일로씨야청년근위대대표단의 성원들은 특출한 국가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현명성과 결단성, 인민을 위한 헌신성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은 자력자강의 힘으로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번영을 이룩해나가고있다.

방문기간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가 된 사회, 신심과 락관에 넘쳐 휘황한 미래를 건설해가는 불패의 나라를 보았다.

현대적인 도시들과 선진적인 과학기술보급기지들, 강력한 군대와 강의한 인민, 바로 이것이 서방의 보도매체들이 애써 숨기려고 노력하는 조선의 실상이다.

쿠웨이트신문 《타임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전인류가 리상으로 그려보는 인민의 나라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국호와 마찬가지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것이 수없이 많다.

이것은 사회주의조선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건설하려는 공화국의 투철한 립장의 반영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비롯한 구호들, 《인민의 심부름군》, 《인민의 총복》과 같은 시대어들과 더불어 온 사회에 인민사랑이 차넘치는것이 바로 조선식사회주의의 특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조선은 불패의 강국으로 승승장구할것이며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릴것이라는것이 세상사람들의 확신이다.

글 김일봉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민족성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으며 매개 민족은 장구한 력사적기간을 거쳐오면서 자기의 고유한 민족성을 가지게 되었다.

민족성은 매개 민족성원들이 가지고있는 공고하고 공통적이며 그 민족에게만 고유한 심리현상이고 거기에는 민족의 자주정신과 민족문화전통이 체현되게 된다.

우수한 민족성은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게 되며 그것은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된다. 그런것으로 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다 자기의 민족성을 살리고 계속 발전시키는데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어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것으로 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더욱 승화발전되게 되었다.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으며 그 민족의 미래도 전적으로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달려있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오랜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 인민으로,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고 사회주의모범을 창조한 긍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령도력으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김일성민족으로서의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 운명을 당당하게 개척해나가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자랑떨치게 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을 살려나가기 위한 투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고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우리 공화국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며 나라의 존엄과 지위를 비상한 경지에 올려세운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리해안의 선견지명과 특출한 령도력으로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존엄높은 강국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줄기차게 빛내어나가고계신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친근한 어버이로 모시고있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교원 심철경

정치용어해설

인민정권

인민정권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의거하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정권이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대표하는 정치조직,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적무기이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의 사명을 수행한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정권이다. 인민정권은 인민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세워지고 인민에 의하여 관리운영되어나가며

정권건설과 활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중심에 놓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모든것을 지향복종시켜나간다. 인민대중이 정권의 주인, 정치의 담당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정권이라는데 인민정권의 본질적특성이 있다.

* * *

조선로동당, 그 생명의 뿌리

조선로동당은 머지않아 자기의 창건(1945. 10. 10.) 80돐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당이 장장 80년 최장의 사회주의집권사를 아로새길수 있는것은 다름아닌 그 뿌리가 든든하기때문이다.

나무가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서있자면 풍만한 토양속에 깊이 뿌리박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이 모진 역경속에서도 동요나 침체를 모르며 승승장구하자면 인민이라는 대지에 깊숙이 뿌리박아야 한다.

인민은 당의 생명의 뿌리이다.

인민과 리탈되고 인민에게 의거하지 않는 당, 공고한 대중적지반을 가지고있지 못한 당은 바람 앞의 초불과도 같다.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도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고 최고원칙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왔다. 창건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모든 정책작성과 집행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투쟁하여왔다. 혁명령도의 전 기간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국에 부딪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었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곤 하였다.

조선로동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것은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제일중대사로, 본분으로 되어왔다.

력사에는 평화로운 시기에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끝잘 떠들다가도 정작 시련에 부딪치면 인민을 등지고 외면하는 집권당들의 모습이 적지 않게 조명되었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은 위급한 상황일수록 인민을 더 뜨겁게 품어안고 어렵고 힘겨울수록 인민들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나라의 여러 지역들이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에도 언제나

인민의 생명과 안녕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전개하였다.

어려운 시련속에서 수도 평양에 별천지로 일떠선 송화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화성지구 1단계, 2단계, 3단계와 오늘도 중단없이 힘있게 벌어지는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 지방발전정책실행을 위해 전국각지에서 벌어지는 거창한 건설사업은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당의 모습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조선로동당은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낌없이 기울이는것을 중요정책으로 내세우고 현실로 꽃피우고있다.

힘겨울수록 후대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을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내세우고있는것이 우리 당이다.

당이 인민대중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있는가 하는것은 당에 대한 인민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데서 표현된다.

인민은 자신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고 헌신적복무로 떠받드는 당을 스스로없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슴속진정을 아뢰이고있다.

진정 조선로동당이 언제나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온것으로 하여 이 땅우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펼쳐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에서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이라고 격조높이 말씀하시였다.

이러한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이기에 앞으로도 자기의 려정에 백승의 길만을 아로새길것이다.

글 임향심

유리꽃병

유리꽃병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항일혁명투쟁연고자 김순옥가족이 2018년 9월 7일 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기회에 삼가 드린 선물이다.

높이 37cm, 직경 11cm인 선물의 내면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여난 나무우에 두마리의 금새가 나란히 앉아있는 그림이 똑같이 형상되어있고 비단우에 꽃을 수놓았다는 내용의 글이 옷부분에 각각 써여져있다.

선물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바라는 김순옥가족의 간절한 마음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번영해가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있다.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우리는 마촌에 와서도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았다. 요영구의 승전소식이 간도전역으로 빠르게 퍼져가던 때여서 우리에게 대한 소왕청인민들의 환영열도 대단히 높았다.

적의 통치에서 완전히 해방된 유격구의 생활은 우리일행을 몹시 흐뭇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 신천지를 지배하는 모든것이 다 우리를 감동시킨것은 아니었다. 간도혁명을 움직이는 일부 지도자들의 일본새와 사고방식 가운데는 우리의 불만을 자아내는 점도 없지 않았다.

우리를 제일 놀라게 한것은 동만지방 혁명가들의 활동에서 열병처럼 만연되고있던 좌경바람이었다.

좌경병은 유격근거지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명월구, 소사하회의들에서 유격근거지창설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는 이미 그 형태를 완전 유격구, 반유격구, 활동거점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형태설정에서 균형을 잘 보장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동만지방의 일부 열성공산주의자들은 해방지구형태의 완전유격구를 건설하는데만 몰두하고 반유격구나 활동거점을 창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낮을 적게 돌리고있었다. 초기에는 왕청에서도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만 건설하였다. 소왕청유격구역만 보더라도 오늘의 우리 나라 한개 군면적과 맞먹는 땅덩어리가 모두 혁명세력이 관할하는 해방지구형태의 쏘베트구역으로 되어있었다. 그 당시에는 완전 유격구를 쏘베트구역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넓은 땅에다 공농정권을 상징하는

쏘베트기발을 띄워놓고 간부들은 《혁명!》, 《혁명!》 하면서 무사분주하게 돌아갔다. 유격구역밖에 나가서 싸움은 별로 하지 않고 프로레타리아독재니, 무산자사회건설이니 하는 허공중에 뜬 구호만 연방 웨치면서 얼렁얼렁 하루하루를 보냈다. 기념일이 오면 병실마당이나 운동장 같은데 모여 로씨야식단스도 하고 메데가도 불렀다. 어떤 날은 동만특위와 현의 간부들이 한데 모여서 목청을 돋구어가며 론쟁도 하였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사실 우리도 그해 봄을 덩덩해서 보냈다. 그러나 점차 유격구사업에서 발로되고있던 일련의 좌익소아병적인 편향도 포착하게 되었고 그것을 퇴치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도와 전술도 모색하게 되었다.

유격구역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초창기에는 왕청근거지에만도 수천명의 피난민과 망명자들이 와있었다. 훈춘, 연길, 화룡의 실태도 마찬가지였다.

부침땅이 적은 산골안에 수천명이 모여들어 와글와글하니 먹을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전부가 콩죽을 먹었다. 땅에 콩을 갈아서서 쌀을 줘 넣고 죽을 쑤어먹곤 하였는데 그것도 있을 때는 더러 타발도 하였지만 없을 때는 양재물에 끓인 송피를 두드려서 송기떡을 만들어 끼니를 에우든가 고사리, 닥지썩, 도라지, 더덕, 둥굴레뿌리 같은것을 삶아서 먹었다. 그렇게 하고서는 혁명가를 부르고 주먹을 흔들면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친일파를 타도하고 놀고먹는 기생층의 무리들을 타도하라고 연설하는것이 초시기의 근거지생활이었다.

물론 소소한 전투도 여러번 하였다. 경찰서를 습격하고 후방물자를 실은 마차수송대도

들이치고 유격구역에 침습해오는 《토벌대》를 제끼고 무기를 빼앗아내기도 하였다. 승리하고 돌아오면 인민들은 기발을 들고 만세도 불렀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투는 많이 하지 못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초를 서든가 피난민들을 보호하는것으로 매일매일을 보냈다. 땅덩이는 컸으나 총도 적고 무장인원도 적다나니 유격대원들은 총을 몇자루씩 나눠가지고 근거지를 보위하는데 몰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가 무장대오를 늘이려고 하면 무슨 서기요, 위원이요 하는 사람들이 겁에 질린 소리로 혁명군은 통일전선군대가 아니니 노동자, 농민의 정수분자들만 흡수하여야지 아무 사람이나 망탕 받아들이게 되면 오합지졸의 무리가 된다고 하면서 한사코 막아나섰다. 그 당시는 항일 유격대가 쏘베트구역안에 있는 무장력이라는데로부터 그 명칭도 공농유격대라고 하였다. 공농 유격대란 노동자, 농민의 군대라는 뜻이다.

몇개 중대밖에 안되는 유격대력량으로 몇천km에 달하는 커다란 땅덩어리를 사수한다는것은 참으로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방어밀도가 설피니 일단 《토벌》만 시작되면 적이 우리의 방어진을 뚫고 중심깊이에까지 쳐들어왔다. 그러면 수천명 인민이 보집을 이고지고 피난을 가느라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이런 피난소동이 매일과 같이 유격구사람들을 들볶았다.

좌경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치 해방지구 령토의 크기가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표징이라든가 되는것처럼 적아의 력량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도 없이 주관적인 욕망만을 앞세우면서 터를 넓게 잡고 유격구역을 고수하는데만 전념하였다. 그들은 지어 유격구역과 적통치구역

을 《적색구역》, 《백색구역》이라는 간판밑에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반동군중》, 《량면과 군중》이라는 딱지를 붙여가면서 적구인민들과 중간지대 인민들을 함부로 의심하거나 배척하였다. 국내인민들도 역시 《반동군중》의 대접을 면치 못하였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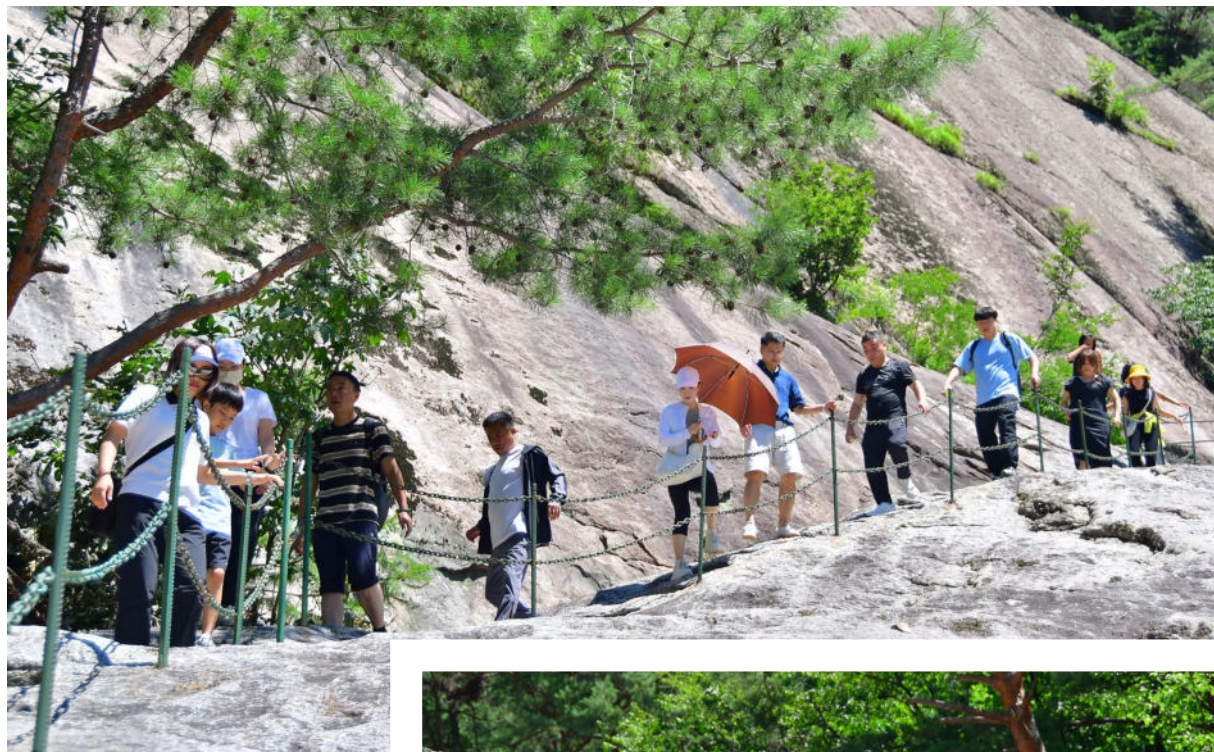
《적색구역》에서는 녀성들이 단발머리를 함으로써 《백색구역》과의 차이를 표시하였다. 말도 글도 노래도 학교도 교육도 출판물도 적백이 서로 달랐다. 《백색구역》에서 《적색구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단속을 했고 취조를 한 다음에도 집으로 잘 돌려보내주지 않았다.

《백색구역》에서 오는 사람은 덮어놓고 적의 간첩으로 치부하라는 상급의 지령이 아동단조직에까지 떨어졌다. 왕청현당의 일부 사람들은 소왕청골안에 있다가 도시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대하여 늘 악의를 품고있었다.

한번은 동일촌에서 망원보초를 서던 적위대원들이 소를 사려고 유격구에 온 대두천의 농민을 붙잡아다가 심문한 일이 있었다. 《백색구역》에서 수상한 농민 한명이 나타나 적위대의 심문을 받고있다는 통보를 받은 현당의 좌경분자는 그 농민이 스파이일수도 있으니 바른대로 대지 않으면 주리를 틀어서라도 정체를 실토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주리를 틀어도 농민은 스파이가 아니라고만 대답하였다. 그 농민은 사실 스파이도 아니고 주구도 아니었다. 그러나 좌경분자들은 농민이 가지고온 현금을 압수하고 불문곡직으로 악행을 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묘향산에서 보낸 1박2일



얼마나 오고싶던 고국인가,
얼마나 그리던 고국인가.
이것은 지난 7월 고국을 방문
하였던 제1차 재중조선공민자녀
방문단 성원들의 마음속에 차넘
친 한결같은 생각이였다.



동포들은 오래 간만에 고국땅을 밟은 기쁨을 누르지 못하며 시종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묘향산에서 보낸 1박 2일은 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었다.



세계의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린 선물들이 전시된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며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꼈는가 하면 보현사에서 선조들의 애국투쟁이야기를 들으며 력사를 거슬러올라가 보기도 하였다.

다음날에는 묘향산절경에서 으뜸가는 곳으로 일러오는 만폭동에로의 등산길에도 올랐다.

크고작은 폭포가 련달아있어 등산길은 참으로 즐거웠다.

한여름의 장쾌한 폭포소리와 싱그러운 풀냄새는 달아올랐던 동포들의 몸을 순간에 식혀주는 듯싶었다.

박혜영, 양원동포들은 등산길에 가지가지의 재미나는 일화들도 남기었다.

고국에서 보낸 나날들은 동포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나날들로 깊이 자리잡았을것이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인상기

부모님들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사태이후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한데다가 풍치수려한 묘향산에 자리잡고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니 그 기쁨을 이루 다 말할수 없습니다.

국제친선전람관은 세계가 모이는 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흠모하여 보내여온 한점한점의 선물들을 보면서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꼈습니다.

우리들은 고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 부모님들의 뒤를 이어 변함없는 애국의 한길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제1차 재중조선공민자녀방문단 단장 강지현, 안해 리설희



근본을 잊지 않게

이번에 나는 아들을 데리고 고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들의 손목을 잡고 고국땅을 밟는데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16년전 나의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고국방문길에 올랐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나에게 비록 우리는 해외에서 생활해도 뿌리는 고국에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자기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나에게도 자식이 생겼습니다. 11살인 아들을 데리고 고국에 오면서 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말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동포로서 몸은 비록 이국땅에 있지만 나나 내 자식의 몸에 흐르는 피는 조선사람의 피이기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식도 앞으로 후대에게 이것을 물려주기 바랍니다.

제1차 재중조선공민자녀방문단 성원 최길, 최운책

잊을수 없다

고국에 오니 사람들이 정말 레절이 밝습니다. 거리에서나 호텔에서나 어디서나 밝은 인상으로 대해주시 마음이 절로 즐거워집니다.

등산길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고 가파로운 길에서는 상할세라 넘려도 해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음식맛 또한 좋습니다.

나는 산나물요리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묘향산에서 그 별식을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구수하고 맛이 좋은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그 맛그대로였습니다.

고국에서 유년시절을 추억하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이번 방문은 잊을수 없습니다.



제1차 재중조선공민자녀방문단 성원 김웅기



동화의 세계속에서 40여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편재순



편재순이 창작한 작품들은 잡지 《아동문학》을 비롯한 여러 잡지에도 실렸다.

얼마전 우리는 동화작가 편재순을 만났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동화작품을 창작하는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댔 편재순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하기 앞서 몇해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추억 하는것이였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시절 부모와 함께 살길 찾아 압록강을 건너간 류랑민이였다. 중국 길림성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서 부모와 함께 부대기 농사를 짓던 어머니는 1960년대초에 조국으로 나왔다.

어머니는 귀국한 후 마흔에 이르러서야 딸 재순을 낳았다.

어린 재순은 밤마다 엄마의 팔베개를 베고 구수한 옛이야기를 즐겨 들으며 자랐다. 그때 벌써 어머니의 그 이야기들이 어린 재순에게 문학의 싹을 심어주어서인지 그는 늘 자기 감정을 글에 담기 좋아하였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으로의 길을 마다하고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문학통신원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동요, 동시와 서정시를 련이어 창작발표하던 그가 뜻밖에도 동화창작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1984년 어느 봄날 마을의 아이들이 파수원에서 잡은 한마리의 고운 새를 들고 재순에게로 달려왔다. 그들의 손에 잡혀 파들파들 떨고있는 새를 보는 순간 처녀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아이들을 이끌고 마을이 잘 내려다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고향마을에 나쁜 벌레를 잡아먹는 리로운 새들이 수없이 날아드는데 새 한마리, 나무 한그루를 비롯한 모든것을 사랑하고 가꿀줄 알아야 한다고 타일렀다.

처녀의 진정 어린 타이름에 잘못을 깨달은 아이들은 스스로 새를 놓아주며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소재를 동화라는 《그릇》에 담아서 이야기를 꾸며나갔다.

재순은 낮에 농사일을 하면서도 머리속에서 글줄을 더듬어나갔고 밤에는 혼자서 독서와 문하리론학습, 창작사업에 몰두하였다.

그는 마을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라는 종자를 잡고 첫 동화작품 《되돌아온 금불로초》를 완성하였다. 련이어 《다시 찾은 샘물》, 《꼬마사슴이 키운 나무》 등을 창작발표하였는데 그가운데서도 1986년 10월 15일부 《문학신문》 4면에 실린 동화 《황금을 찾은 돌쇠》는 새롭고 생동한 묘사와 구성, 표현력으로 하여 그해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에서 1등으로 당선되였다.

당시 처녀농장원인 편재순의 나이는 22살이였다.

다음해 녀기자가 농장포전머리에까지 찾아와 그를 만나고 돌아갔다. 후에 안 일이였지만 그 녀기자는 편재순의 중학시절 옛 담임선생님과 동무들, 마을사람들까지 다 만나보고는 어느한 대외잡지에 《농장마을의 처녀작가》라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실었다.

이 글을 읽은 중국의 신화통신사 기자도 편재순을 찾아와 취재하여 조선의 군중문학활동에 대해 세상에 또다시 소개하였다.

나라에서는 문학통신원인 그를 김형직사범대학 작가양성반으로 불러주었으며 졸업후에는 문학예술출판사에서 잡지 《아동문학》의 편집원으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아동문학분과위원회 작가로 내세워주었다.

그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에든 다 찾아갔다. 그가 아이들속에 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 나이를 잊은듯하였다. 그는 아이들과 어머니들, 교양원, 교원들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아이들의 나이별심리적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새로운 주제영역을 찾아 사색을 이어나가기도 하였다.

이렇게 창작한 그의 작품들은 무려 수십편이나 된다.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의 정신적성장에 이바지한 그의 수많은 동화작품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었다.

동화의 세계속에서 흘러간 인생의 40여년간, 편재순은 비록 자기의 이름은 아이들의 기억속에 희미해진다고 해도 동화작품들이 조국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데 이바지하였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자부하며 오늘도 펜을 달리고있다.

글 연옥, 사진 리철



장기수풀이 (33)

장기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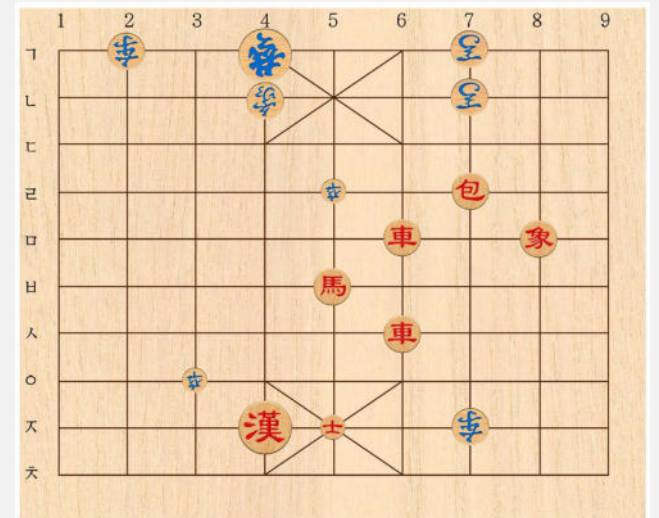
외포는 귀포

이 말은 포가 하나일 때는 귀포를 놓아야 일반적으로 공격과 방어에서 유리하다는 뜻이다.

외포는 귀포라고 해도 면포 또는 중포를 요구하는 정황이 조성되면 지체없이 형세에 맞게 귀포를 변화시켜놓아야 한다는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장기수풀이 (32)에 대한 답

ㄱ2말ㄴ4, ㄱ6차ㄴ5, ㄱ7병ㄱ7,
ㄱ6궁ㄴ6, ㄱ7병ㄴ7, ㄴ6궁ㄱ6,
ㄱ1차ㄱ4,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여기가 우리 사는 고장입니다



해외에서 고국의 소식을 기다리고있을 동포들에게 시간이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중국 길림성 리정화동포의 조카 정춘영가정이 살고 있는 황해북도 연탄군으로 향하였다.

황해북도라고 하면 별방지대로 소문이 났지만 연탄군은 군의 대부분면적이 산지로 되어있어 별방을 부러워하며 슬금슬금 도회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마다 장마철이면 범람하는 황주천때문에 고생하는 황해북도인민들의 생활을 넘려하시어 이 고장을 찾아주시고 황주천을 다스려 덕을 볼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행복은 찾아가는것이 아니라 제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연탄군을 비롯한 도내인민들모두가 떨쳐나 긴긴 세월

제멋대로 흘러가던 황주천상류를 막아 호수를 만들었다. 특히 연탄군사람들은 황주천을 따라 10여개의 계단식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군의 전기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고있었으며 주변산지들에 수백정보의 단나무, 비타민나무, 수십정보의 향료생산용장미밭을 조성하고 오미자를 비롯한 고려약초들도 많이 심어 이제는 단나무열매만도 해마다 수십t씩 거두어들이고있다.

올해초 이 고장사람들에게 일대 경사가 났다. 조선로동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 산아인 연탄군 지방공업공장들이 준공되어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고르롭게 울리는 속에 군주민들의 생활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군식료공장에서만도 《천녀봉》상표를 단 질좋은 밀된장, 식용기름을 비롯한 기초식품들, 단나무 발효초음료와 같은 기능성음료와 오미자단물, 산딸기단물, 사탕, 과자, 효모빵 등 수십가지 제품들이 짙짙 생산되어 군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읍지구의 상업봉사장에서 갖가지 식료품을 구입하던 배춘희녀성은 제품들의 가격이 낮고 맛도 좋다고 하면서 평양에 시집간 딸과 외손자에게 연탄특산물을 한가득 보내겠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또한 일용품공장과 옷공장에서 생산되는 《연탄호》상표를 단 여러가지 비누와 건재품들, 《금수봉》상표를 단 계절복과 다양한 형태의 내의류도 도시제품 못지 않았었다.





연탄군병원에서



연탄군옷공장에서

연탄군 읍유치원 원장 리은별은 최근년간 우리 당의 육아정책으로 매일 젖제품, 간식들이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어 그전에 비해 아이들의 몸무게가 늘어나고 평균키가 1년에 2~3cm정도 더 커졌다고 하였다.

우리는 읍에서 10리가량 떨어진 월룡농장 제4작업반의 새 마을도 찾았다. 마을의 앞으로 흐르는 황주천을 따라 뽕산과 조화를 이루며 준비하게 늘어선 단층, 다락식살림집들의 전경은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같았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리원철, 홍충복부부는 남먼저 희한한 새집을 받아안고보니 농민들을 위하는 나라의 고마움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는것이였다.

그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농사일에 극성을 부리고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더 열심히 습득하고있는것이 이 고장사람들의 풍조로 되고있다는 농장의 경리 김춘봉의 말을 들으니 다수확으로 풍요한 가을을 안아 오려고 아글타글 노력하는 농장원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조선로동당의 육아정책과 농촌진흥, 지방발전정책의 생활력을 체감하고



연탄군일용품공장에서



연탄군식료공장에서

고향산천을 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갈 열의에 넘쳐있는 연탄군사람들이였다.

심원사를 비롯한 력사유적들과 단나무로 소문난 이 고장에 늘어만나는 자량은 끝이 없을상 싶었다.

별방을 부러워하던 산골군을 별방이 부러워하는 산골군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연탄군사람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글 엄릉
사진 리철



연탄군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도시제품 못지 않아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사장 임광빈

선진적인 경영방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품질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민의 평가이다. 인민이 누구나 선호하는 제품이
라야 명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것이다.



《푸른하늘》상표를 단 전자제품과 정보기술제품들이 국내에서 인기를 모으고있다.

제품들은 조작성의 안정성과 그 장치적성능이 우수한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명제품으로 인정되고있다.

손전 화기와 수자식 TV, 컴퓨터 등 《푸른하늘》제품들은 해마다 10대 최우수정보기술제품, 우수정보기술제품으로 평가되고있다.

제품들은 푸른하늘무역회사 푸른하늘전자제품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2014년에 발족한 회사는 공장 외에도 강력한 정보기술연구소와 상점 등을 가지고있다.

회사는 력사가 오래지 않지만 정보기술업계에서 얼굴이 뚜렷하고 전망이 좋은 기업체로 평가되고있다.

회사는 첨단분야의 정보기술연구와 다양한 전자제품생산, 대규모상업 및 전자상업의 일체화를 실현한 종합적인 개발창조형

의 첨단기술기업체이다.

지난해 기업은 7번째로 국내 10대 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되어 자기의 지위를 고수하였다.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회사의 선진적이고 독특한 경영활동방식에서 찾아보게 된다.

회사는 선도자적인 기술력제고와 최고의 품질, 판매후봉사를 경영활동의 3대원칙으로 내세우고 시종일관 견지해나가고 있다.

회사의 정보기술연구소에서는 100여명의 우수한 연구력량을 주력으로 하여 인공지능기술과 위조방지기술,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첨단기술 및 제품개발과 상용제품개발, 정보기술기반의 봉사체계운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정보기술과 제품들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리는 연구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회사에서 연구개발한 인쇄기

인증기술과 보안감시체계는 현실에 도입되어 긍정적평가를 받고있다.

하나의 연구목표를 설정해도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선택하고 실천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해나가는 이곳 연구집단을 사람들은 최고만을 인정하고 지향해나가는 집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무리 최신기술이라고 해도 품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명제품이라고 말할수 없다.

연구개발대상선정에서부터 철저한 품질을 확정하는것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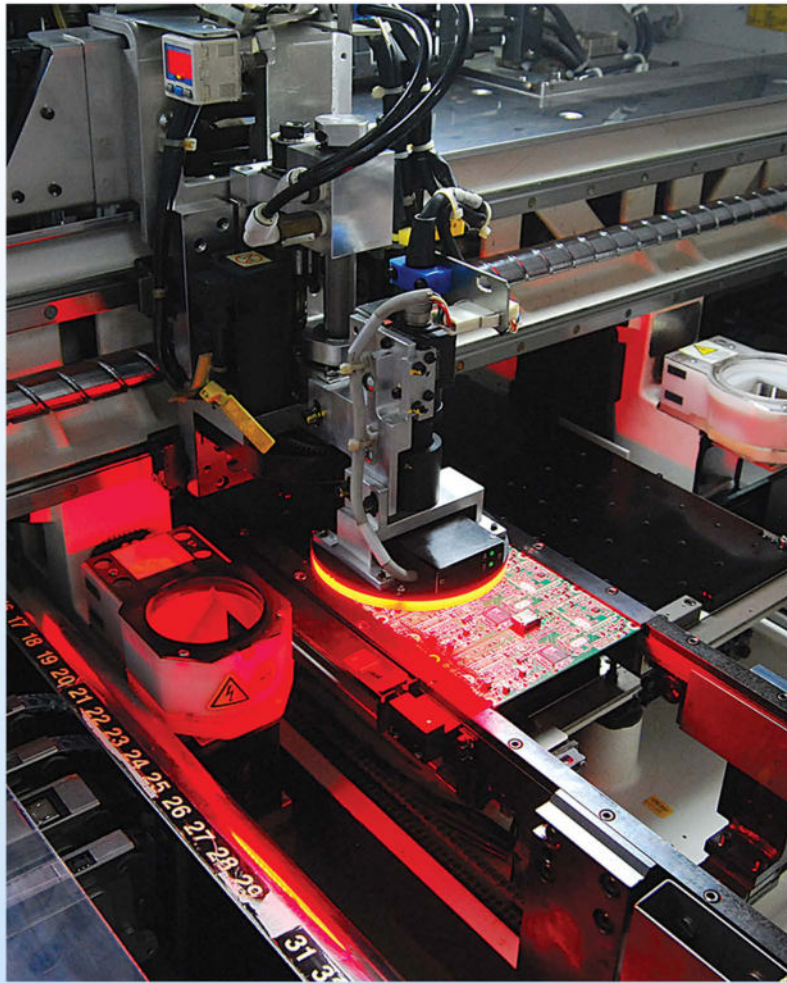
여기에서 품질은 곧 현실에서 가치있고 의의있는 개발

대상선정, 대상의 개발방향을 정확히 확정하는것이다.

회사에서는 개발대상선정뿐 아니라 개발과정, 생산, 판매, 판매후봉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철저한 품질관리체계를 세우고 제품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고있다.

회사에서는 판매후 소비자, 수요자들속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종합하여 연구와 생산에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발전적인 새 제품으로 실현시켜 우대봉사를 진행하고있는데 이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향이 좋다.





회사가 자기식의 선진적인 경영방식을 구현하고있는데는 그를 받침해주고있는 인재들이 있기때문이다.

엄격한 인재선발체계에 의해 해마다 엄선되어 자체로 양성되고있는 인재들은 회사의 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하고있다.

회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연구개발거점들을 전개하여 독자적인 개발과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공동개발사업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누구나 다 아는 《푸른하늘》, 누구나 사랑하는 《푸른하늘》이 되게 하자는것이 이곳 집단의 변함없는 지향이고 의지이다.

글 김성경
사진 김성철, 리영철, 전선일





건설장들에 더 많은 마감건재를

- 평양건재공장에서 -

지난해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평양건재공장에서 올해에도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생산장성을 이룩하고있다.

기적적인 세멘트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처럼 조선로동당창건 80돛이 되는 올해를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려는것은 이곳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지금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월별, 분기별계획을 높이세운 이곳 일군들은 직장별, 작업반별 사회주의 경쟁열풍을 보다 세차게 일으켜 온 공장이 마감건재생산으로 들끓게 하고있다.

일군들은 하루생산정형을 빠짐없이 료해장악하고 모범적인 직장, 작업반들의 성과를 널리 소개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면서 생산이 련속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혁신은 생산자대중속에서도 일어나고있다.

위생자기직장에서는 높아진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열의 밑에 모형생산속도를 3배로 늘이고 건조속도를 배로 앞당길뿐 아니라 모형들을 여러번 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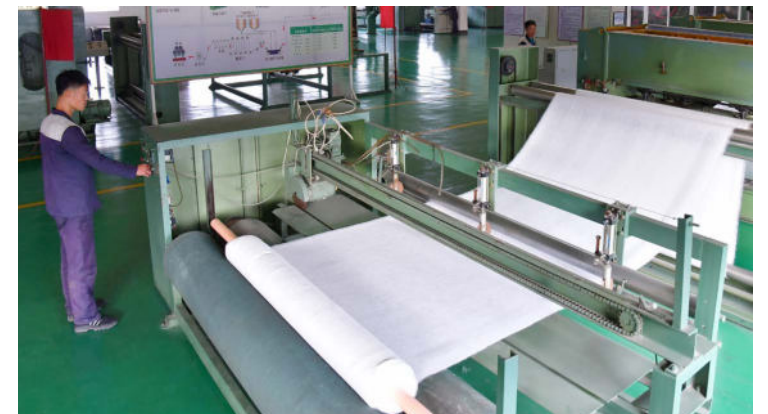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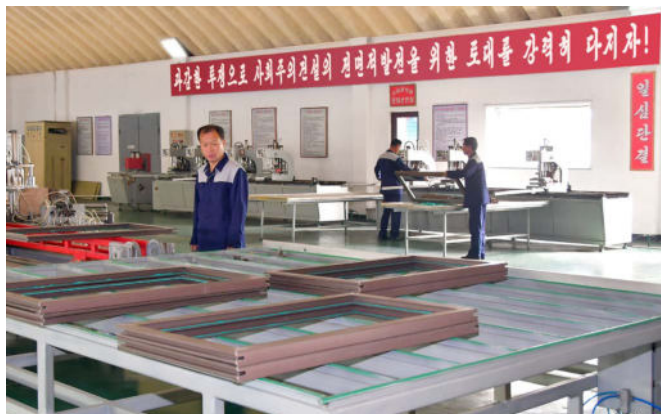
할수 있는 가치있는 안들을 적극 도입하여 종전보다 위생자기생산량을 훨씬 늘여나가고있다. 그런가 하면 타일직장에서는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소성로의 수분건조공정을 새롭게 확립하고 타일상차기현시장치

등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창안 도입하여 현실에서 은이 나게하고있다.

직장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는 곧 공장의 생산실적으로 이어지고있다. 지금 공장에서 다량생산되는

타일들과 위생자기, 인조대리석을 비롯한 여러가지 마감건재들은 수도의 살림집건설장들에 보내여지고있다.

글 강경수
사진 김성철



인삼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추진

-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에서 -



예로부터 개성고려인삼은 그 약효에 있어서 다른 인삼들과 견줄수 없는 으뜸보약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 고려인삼제품을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근 70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공장은 지난 기간 전반적생산

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추진하고 제약생산구역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는 한편 수많은 개성고려인삼제품들을 개발 생산하였다.

오늘 공장에서는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설비들을 갱신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 그 가지수를 늘여나가기 위 한데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이미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합식자동건조기를 현대적으로 제작설치하여 인삼단목생산의 정상화를 실현한것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설비들을 새롭게 갱신하였다.

최근시기에는 보다 선진적인 고려약추출농축공정을 일떠세워

종전보다 가공품의 질을 현저히 높였다.

기술혁신의 앞장에는 공장 일군들이 서있으며 그들의 이신작칙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었다.

고려약추출농축공정을 세울때에도 그러하였다.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일부 종업원들속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 일군들은 농축공정확립을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대중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기술자, 기능공들로 기술력량이 무어지고 해당한 대책들이 세워졌다. 선진기술

자료들을 탐독하면서 걸린 문제들을 풀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고 토론과 논쟁을 벌리는 과정에 가치있는 의견들이 나왔다.

고심어린 노력끝에 이들은 어렵다던 고려약추출농축공정을 일떠세우게 되었다.

공장에서는 이런 사업기풍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도 줄기차게 내밀었다.

공장종업원들 누구나 일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착상들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새 제품들이 개발되고 그 질도 현저히 높아졌다.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는 개성고려홍삼, 개성고려원형인삼, 개성고려인삼불로초보양액, 개성고려인삼술, 개성고려인삼차, 개성고려인삼단너삼차 등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있으며 국외에도 수출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글 강경수
사진 리석

선진적인 교육방법과 교육기술들을 탐구 도입하여

- 평양교원대학 어린이지능개발기술교류소에서 -

평양교원대학 어린이지능개발 기술교류소에서 학령전어린이들과 소학교학생들의 지적능력 개선에 이바지하는 우월한 교육 방법과 교육기술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최근년간에만도 교류소에서는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비추어 학령전어린이들과 소학교 학생들의 지적능력수준에 부합되는 여러건의 독특한 교육방법과 교육기술을 연구도입하였다.

외국어조기교육방법, 주심산 교육기술, 로보트교육기술을 비롯한 교류소에서 연구도입한 교육방법과 교육기술들은 어린이들의 지적능력을 비할바없이 개선하는것으로 하여 현재 많은 유치원들과 소학교에서의 과외교육에 널리 도입되고있다.

그중에서도 외국어조기교육 방법은 소학교학생들의 외국어 인식능력을 끌어올리는데서 그 효과성이 뚜렷한것으로 하여 평가를 받고있다.

소학교 1학년시기부터 외국어 듣기와 말하기, 쓰기 등을 가르치면서 점차적으로 일반회화를 할수 있는 정도까지의 교육을 준 다음 학년말단계에 가서 제2외국어를 배울수 있게 한 교육방법은 학생들은 물론 교원들과 학부모들속에서도 반영이 좋다.



외국어조기교육방법을 도입하고있다.

소학교 학생들에게 수학과 외국어지식을 동시에 습득시키면서 발표능력도 키울수 있게 하는 수학과 영어를 결합한 교육기술도 여러 교육단위에 도입되어 큰 은을 나타내고 있다.

교류소에서는 이밖에도 주심산 교육기술, 로보트교육기술을 비롯한 두뇌발달교육기술들을 계속 발전시키는 한편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교육방법을 연구완성하는 사업에서도 진전을 이룩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교류소에서는 교육현실에서 제기되는 의견들과 교육과정에 이룩된 경험을 충분히 종합한데 토대하여 효율적인 교육방법들을 내놓기 위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소학교 1, 2학년에서는 학생들의 지능을 개발시켜주는 방향에서, 3, 4, 5학년에서는 사고력, 탐구력을 키워주어 중등교육 단계의 지식을 원만히 습득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방향에서 교수구조를 설계하고 방법들을 탐구하고있다.

평양교원대학부속 모란봉구역 서흥소학교 교원 배진향은 《소학교학생들의 동심에 맞게 창조된 교육방법들은 확실히 실효가 크다. 지난 시기 수학이나 외국어과목에 별로 취미를 붙이지 못하던 학생들이 지금은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있으며 지적능력도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글 김설향
사진 김영호

꼬마무용수들이 자라난다

- 모란봉구역 민흥소학교에서 -

평양시의 모란봉구역 민흥소학교는 재능있는 꼬마무용수들을 많이 키워내고있는것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교육자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학교에 무용소조가 생긴것은 10여년전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을 졸업하고 예술단체에서 배우생활을 하던 최은숙이 무용교원으로 온 후부터였다.

학교에서는 재능있는 무용수후비들을 많이 키워내어 민족무용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겠다는 그의 결심을 지지해주면서 적극 떠밀어주었다.

학교에서는 소조원선발사업부터 중시하고 적성체질의 학생들을 소조에 망라시켜주었으며 소조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었다.

이에 고무된 최은숙은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갔다.

그의 포부는 컸지만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무용기초를 가르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어린 학생들이 민족무용의 고유한 춤가락과 기법을 리해하기 힘들어하였던것이다. 그는 인내성을 가지고 동심에 맞게 지루감을 모르고 훈련에 재미를 붙이도록 과정을 작성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소조는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무용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한 소조원들은 학교와 집에서, 학교로 오가는 길에서도 안땀장단, 양산도장단과 같은 우리 장단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에



생기있고 활달한 춤동작들이 하나, 둘 몸에 배이기 시작하였다.

소조원들의 실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최은숙은 학생들의 심리와 조건에 맞는 훈련지도를 보다 본격화해나갔다.

반복훈련을 통한 숙련과 함께 소학교학생들의 심리와 육체적 조건, 발전정도에 따르는 독특한 교수수법들을 탐구적용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특히 학생들이 우아하고 고상하며 서정이 깊고 룰동이 섬세할뿐 아니라 팔동작이 부드러운 조선춤의 특징을 잘 살릴수 있게 교육하는데 많은 품을 들이였다.

그는 팔과 다리를 비롯한 몸부위의 놀림과 모양새를 조화시키기 위한 여러건의 참신한 교수방법들을 창조하여 적극 활용해나갔다. 그리고 기초훈련지도를 강화하여 춤출 때의 자리변화와 돌기, 기재다루기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원리적으로 인식하도록 단계별훈련을 실속있게 하였다.

이렇듯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의 관심속에 소조원들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많은 소조원들이 조선춤의 우수한 민족적색깔을 손색없이 형상해내는 꼬마무용수들로 자라났으며 전국적인 학생소년들의 예술축전들에 참가하여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곳 무용소조원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적인 학생들의 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으며 졸업생들가운데는 예술단체들에서 활약하는 배우들도 여러명 배출되였다.

글 강진성
사진 김강무



고려 치료에 능한 의사

황해남도고려병원 침구과
과장 송대환

황해남도고려병원 침구과 과장 송대환은 침구료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고있다.

송대환의 매력에 대해 알고있는 일부 사람들은 그의 의술을 두고 유전적이라고 말하고있다. 즉 고려의사였던 외할아버지에게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는것이다.

어려서부터 침구술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던 그는 중학교 시기는 물론 졸업후 농사일을 할 때에도 고려의학도서들을 열심히 읽었다. 그 나날 고려의학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생활 습성과 체질에 맞으며 적은 투자로 큰 치료효과를 볼수 있는 우월한 민족의학이며 귀중한 유산이라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2001년부터 해주의학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그는 학습에 열중한 한편 침구서적들을 탐독

하였다. 박사원시기에는 해당 질병의 발생병리와 개별적침혈들의 현대의학적작용에 따르는 새로운 침혈처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 그는 200여개 침혈들의 현대의학적작용에 대하여 파악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는 자기의 착상을 먼저 소화기계통질병들과 신경계통질병들을 비롯한 일반질병치료에 도입하였다. 결과는 종래의 침혈처방들에 비하여 치료효과가 높다는것이 확증되었다. 특히 그것이 일반침 치료에 비하여 몇년 지어 10년 이상으로 오래동안 유지된다는 자료를 얻게 되었던것이다.

여기에서 신심을 얻은 그는 자기의 침치료방법을 오래동안 경과하면서 고질화되고 복잡한 증세를 나타내는, 신의학적 치료로써는 효과를 기대할수

없는 만성질병치료에 적용해 보았다.

좋다는 약이란 약을 다 써도 호전, 악화를 거듭하면서 고질화되어가던 만성질병들이 몇번의 침뜸치료로 수그러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그는 치료를 중단없이 내밀어 30~40일만에 환자들을 완전히 회복시켰다.

이 과정에 그는 발생병리에 따르는 침혈선택과 함께 치료 주기설정을 바로하는것도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서 큰 작용을 한다는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이 질병의 발생원인과 병리적률동에 따르는 침구료법이다. 그는 이 침구료법으로 세계적으로 고치기 힘든것으로 알려져있는 난치성질병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거대취장낭종을 치료하려고 한 녀성이 그를 찾아왔다. 직경이 13cm인 낭종으로 하여 배는 불룩이 나와있

었고 오랜 기간의 소화흡수장애로 빼만 양상한 환자를 대하는 순간 그는 실망감이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환자의 진단명에만 치우치는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일하는 보건일군의 자세와 립장이 아니며 과학적인 치료방법에 정성을 결합시켜나간다면 능히 고칠수 있을것이라는 신심으로 치료에 립하였다.

과의 의료일군들도 환자의 회복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 하였다.

치료기일이 어느 정도 지나 호전을 보이던 환자가 아픔을 호소하였다. 송대환은 락심해있는 환자에게 신심을 주며 치료를 계속하였다.

그로부터 20여일후 환자치료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초음파검사결과 것처럼 말썽을 부리던 낭종이 흔적없이 사라졌던것이다. 퇴원하는 날 환자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고려

치료가 이렇게 좋은줄은 정말 몰랐다고, 선생님의 유능한 침구술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번이나 되뇌이였다.

그때 그는 환자에게 결코 나의 의술이 높아서가 아니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첫 자리에 놓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라고 말해주었다.

그의 새로운 침구료법이 창안 도입되어 10여년간 치료효과가 확증된 질병들은 류마치스성 관절염, 만성간염, 건선, 골육종 등 수십가지나 된다.

질병의 발생원인과 병리적률동에 따르는 그의 침구료법은 장애된 장기나 계통의 기능을 자체로 회복시키는것으로 하여 외부적으로 주입된 물질의 자극에 의하여 생체의 활동이 유지되는 약물료법과 구별되는 독특한 치료방법이라고 볼수 있다.

그는 《질병의 발생병리가 다양하고 증세가 복잡하며 진단과 치료방법이 고도로 세분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고려의학을 부단히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사업은 고려의학에 대한 애착과 진지한 탐구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글 변진혁
사진 김강무





상 식

담배를 끊는데 좋은 무우

끊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있다.

담배는 의연히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살인자》로 되고있다.

만약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지 못한다면 종당에 가서는 그 절반의 사람들이 담배와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할것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흡연자들을 도와 담배를 효과적으로

그중에는 무우로 담배를 끊는 방법도 있다.

무우를 깨끗이 씻어 가늘게 썬 후 쥘쥘한 즙을 짜버리고 사탕가루를 적당히 넣으면 담배를 끊는 약으로 된다.

매일 이른아침마다 사탕가루를 넣은 무우를 작은 접시로 하나씩 먹은 후 담배를 피우면 담배맛이 떨어지면서 담배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히 담배를 끊게 된다. 이 방법을 연구해낸 전문가들은 담배를 끊게 하는 작용성분이 무우에 들어있는 무우산에 있다고 주장한다.

*

*

*



아시아패권을 쥔 레슬링원수

《경기를 통해 훈련에서 흘린 땀의 무게가 헛된것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것은 2025년 아시아레슬링 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국을 떠나면서 처녀레슬링 선수 오경령이 한 말이다.

평안북도 정주시에서 태어난 경령이가 레슬링을 배우기 시작한것은 소년시절부터였다.

사실 음악을 좋아하였던 경령이의 아버지는 집안의 막내인 딸자식을 음악가로 키울 생각이였다.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경령이는 아버지가 안겨준 손퐁금을 제쳐놓고 파외체육 학교에서 레슬링을 배우는 오빠만을 따라다니였다.

오빠의 경기모습을 보며 레슬링에 매혹을 느낀 경령이의

마음속에는 레슬링선수가 되려는 꿈이 자리잡게 되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이것은 확고한 결심으로 굳어졌다.

딸의 결심이 확고한것임을 알게 된 아버지도 그의 선택을 지지하였다.

정주시파외체육학교에 입학한 경령이는 인차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육체적준비가 좋고 속도가 빠른 그는 몇달후부터 국내에서 진행되는 소년급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후 평양체육단 파외체육학교에 입학한 그는 육체기술적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였다.

땀을 흘린것만큼 그의 경기 성적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14살부터 그는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적인 청소년급경기에서 련승을 거두었으며 2015년 아시아청소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그러나 그후 경령이의 성적은 훈련도중에 입은 부상과 그로 인한 육체적능력저하로 부진상태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마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게 되었다.

경령이가 어느한 국내경기에서 뒤자리를 차지하고 고민하고있을 때 박현철감독이 그의 속소에 찾아왔다.

《때로 경기에서 질수도 있다. 문제는 경기의 승패에 있는것이 아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초심이 흔들리는 나약한 선수는 설사 육체기술적준비가 좋아도 절대로 우승할수 없다. 체육선수에게 있어서 육체기술적준비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이 정신적준비, 심리적준비이다. ...》

감독의 나직하나 엄한 질책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날 경령이는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라며 떠밀어주던 아버지의 당부를 잊고 주저앉았던 자신을 타매하였다.

자신을 다잡은 경령은 분발

하였다.

그는 감독이 주는 훈련과제외에도 자체로 훈련계획을 세우고 육체기술적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다양한 다리잡기기술과 앓은레스팅에서의 특기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흘린 땀방울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정신육체적극한점을 이겨내는 훈련의 나날 경령이의 능력은 날을 따라 향상되어갔다.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속에서는 다시금 그의 이름이 불리워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령선수는 올해 요르단의 암만에서 진행된 2025년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 출전하였다.

중국, 몽골, 까자흐스탄을 비롯한 20여개의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한 선수권대회의 55kg급 여자레스팅경기에서 경령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첫 경기에서 끼르기즈스탄 선수를 기술적우세로 이긴 경령

선수가 두번째로 대결한 선수는 우승후보자로 지목되고있던 일본 선수였다.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이 경기에서 일본 선수가 이길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경기결과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결승경기에서도 그는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앞선 경기들에서 압도적인 기술로 상대들을 이기고 올라온 중국선수는 그야말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러나 경령선수는 다양한 기술수법들을 능숙히 활용하여 8:1이라는 점수차이로 상대선수를 이기고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이것은 그가 국제경기에서 받은 두번째 금메달이다.

아시아레슬링강자 오경령. 그는 다음번 우승을 향해 오늘도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리고있다.

글 김성영
사진 김영호



박현철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기술을 연마하고있다.

세계지질공원

백두산지구 (1)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유네스코집행리사회 제221차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백두산지구가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질공원은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데서 중요할뿐 아니라 특수한 과학적의의와 희귀한 자연적속성, 우아한 미학관상적가치를 가지는 지질유적들이 일정한 규모로 분포되어있고 자연 및 문화유산을 포함하고있는 과학연구 및 보급 기지, 관광지이다.

백두산지구가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됨으로써 백두산의 지질학적의의와 관광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다.

본사편집부는 우리 나라의 자랑이며 세계의 재보인 백두산지질공원의 30여개의 지질유적을 련재로 내보낸다.



백두산화산

백두산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조선의 정신과 기상이 응축되어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이다.

백두산화산은 신제3기(지질학적년대로서 2500만년전부터 200만년전까지)말~제4기(약 200만년전부터 현재까지)초에 준알카리현무암질암장의 흐름성분출에 의하여 형성된 백두

용암대지우에 조면암질, 조면영안암질, 류문암질암장들이 여러 차례 분출하여 형성된 복합화산추이다.

백두산화산체의 마루에는 천년기대분출후에 산체가 함몰되어 생긴 분화구가 있으며 이 분화구에 대기강수가 채워져 백두산천지가 형성되었다.

백두산의 기본산체는 대지구역 즉 주변의 낮은 평지지역과 뚜렷이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고

솟아있는 고원성평지구역과 접하는 계선으로부터 마루를 포괄하는 지역이며 이 기본산체를 백두산이라고 부르고있다.

백두산의 기본산체는 평면상으로 볼 때에는 타원형에 가깝게 생겼으며 자름면상으로는 종모양으로 생겼다. 조면암질용암이 겹겹이 쌓여 층상을 이룬 높고 험준한 바위산지이다.

기본산체의 해발높이는 2750m이며 천지물면으로부터 상대높이는 560m이다.

백두산천지는 장군봉, 향도봉, 해발봉, 단결봉, 제비봉, 락원봉, 쌍무지개봉 등과 같은 산봉우리들에 의하여 둘러싸여있다. 그가운데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높이가 2750m인 장군봉이다.

이 산봉우리들은 그자체가 화산분화구이며 백두산천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사상단층과 고리모양단층이 사귀는 곳들에 있다.

백두산화산은 거의 모든 화산분출단계를 거쳐 형성된 세계적으로 보존상태가 가장 좋은 거대하고 희귀한 복합화산체의 하나로서 각이한 분출형식의 화산암들과 화산암층들을 다 볼수 있는 화산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거점이다.

정일봉

소백수기슭에 웅장하면서도 기묘한 생김새를 갖춘 정일봉은 해발높이가 1798m에 달하는 봉우리이다.

원래 봉우리의 이름은 장수봉이었다.

1988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일동지의 생가옆에 있는 봉우리가 아주 묘하게 생겼다고, 그 봉우리 이름을 장수봉이라고 지었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김정일동지가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에서 《정일봉》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정일봉의 높이는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있는데서부터 200m정도이다.

정일봉은 제4기 갱신세(지금으로부터 약 200만년전)에 점성이 높은 조면암질암장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식어 굳어진 후 주변암석이 침식, 삭박되어 없어지고 화도암체가 보존되어 생긴 용암탑이다. 여기서 화도는 화산체침부에 있는 암장원으로부터 암장이 땅결면으로 분출할 때의 통로를 말한다. 오랜 화산에서는 빙하와 다른 침식작용으로 화산체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깎이운 경우 화도의 자름면이 로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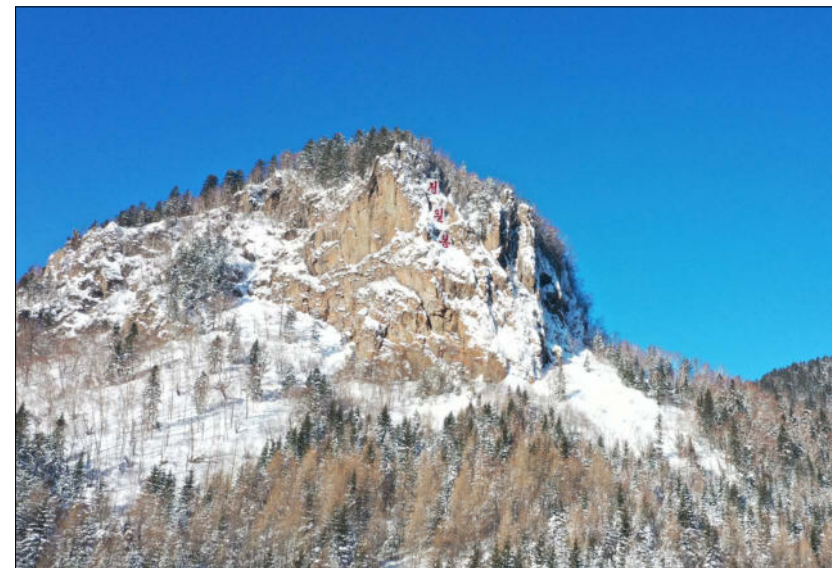
정일봉은 백두용암대지우에 솟아오른 화도체로서 조면암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조면암은 투장석반정이 있고 황철광이 산광광석상태로 나오는것이 특징이다.

정일봉은 구조적으로 간백칼데라의 긴축방향인 북북서방향단층과 북동동방향의 소백수단층과의 교차점에 존재하며 간백칼데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화도체이다. 여기서 칼데라는 화산마루에 있는 큰 분화구를 말하는데 직경이 적어도 1km에 달한다.

정일봉의 앞면은 웃너비 50m, 아래너비 80m, 높이 약 100m인 절벽이다. 북쪽면은 경사가 느리게 사자봉과 련결되어있다.

정일봉은 간백산화산무리의 독특한 자연경관들중의 하나로서 백두화산대에서 가장 큰 용암탑이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제4기 화산지대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화도체로서 국제적의의를 가지는 지질유적이다.

* * *





민족의 향기



록두지짐 만드는 풍습

나는 얼마전 농촌에서 사는 친척이 보낸 록두를 받았습니 다.

록두로 나물을 키울가, 지짐 을 지질가, 묵을 만들가 하고 생각하다가 식구들에게 물어보 니 모두들 록두지짐을 먹고싶다 는것이였습니다.

지짐만들 준비를 다 끝낸 나는 지짐판의 한가운데 얇게 편을 낸 돼지비계를 놓고 반죽 물을 동그랗게 부어 지짐을 지졌 습니다.

돼지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물물 풍겨나는 록두지짐은 보기 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지짐을 먹어보고는 언젠가 옥류관과 청류관에서 맛본것과 똑같다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물랐습니 다.

최근 시대가 발전하여 식생 활의 다양성으로 새로운 속성 음식들이 많이 출현하고있지만 록두지짐을 만들어먹는 풍습은

아직도 자기의 한자리를 든든히 차지하고있을뿐만 아니라 런던 히 이어지고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있으실텐 예로 부터 록두지짐은 평양랭면, 평양 온반, 대동강송어국과 함께 평양의 4대음식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지짐은 전병, 빈자떡, 빈대떡, 화전(전화)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웠으며 그가운데서도 록두지짐이 가장 맛 좋고 약효가 높은것으로 알려 졌다고 합니다.

록두지짐은 지방에 따라 부재료를 쓰는데서 약간의 차이 가 있는데 이전의 평안도지방에 서는 록두를 갈아 거기에 남새 와 돼지비계를 넣어 노르스름하 게 지진것이 특징적이였습니다.

특히 록두지짐을 굽높은 접시에 겹쌓아 잔치상에 놓는것 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왔으며 록두지짐을 놓지 않은 잔치상은

잘 차린 상으로 일러주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날 결혼식이나 경사로운 때의 큰상은 물론 제상에도 록두 지짐을 놓는것이 풍습으로 되어 있었고 평상시에도 특식으로 지저먹곤 하였습니다.

마침 추석날도 가까와오고있 는데 이번 기회에 《록두지짐 명수》로 소문난 청류관 요리사 옥금주의 이야기를 여기에 옮겨 볼가 합니다.

《록두지짐은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술중독, 오줌내 기, 독풀이, 더위막이 등에도 매우 좋습니다.

록두지짐을 맛있게 만들자면 우선 록두의 품질이 좋아야 합 니다. 좋은 록두를 고르는 방법 부터 알려드린다면 낱알의 색이 진하고 기름기가 돈다 하게 반짝거리는것을 골라야 합니다. 록두를 선택한 다음

그것을 대충 타개어 미지근 한 물에 3시간 불구어놓습니 다. 그다음 록두를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긴 후 속살을 쌀처럼 일어야 합니다. 이것을 분쇄기 나 망에 갈아 방안온도에서 한시간반정도 숙성시킵니다. 이번에는 단 지짐판우에 적당 한 크기의 비계를 잘라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간을 맞춘 반죽물을 한국자 부어 동그랗게 모양을 잡습니다. 지짐이 익기 시작할 때 돼지기름이나 콩기름 을 약간 두면 가장자리가 노릿 노릿해지면서 바삭바삭하게 지저집니다. 지짐웃면이 익은 후에는 지짐을 뒤집어 마저 익히고 인차 그릇에 담아 냅

니다.

강조하고싶은것은 갈아놓 은 반죽물에 소금을 두면 인차 삭으므로 반드시 지짐을 지질 만큼 덜어서 지지기 전에 간을 맞추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부경리 김명심 과 주방장 채광철도 만나 록 두지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 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청류관에서는 여러해동안 록두 지짐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 에 록두가공기술을 터득하게 되었으며 이 기술은 제37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 다. 우리는 올해 2월 요리사

옥금주동무가 제13차 전국요리 기술경연에 참가하여 록두지짐 을 잘 만들어 1등을 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동포여러분이 록두 지짐을 어떤 방법으로 지지곤 하였는지 궁금하지만 다음번에 는 어디 한번 이번호에 소개한 방법대로 록두지짐을 지저보십 시오. 그러면 록두지짐의 고유 한 맛이 한결 살아남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그럼 가정이나 이웃들끼리 록두지짐을 지지고 맛보며 이 풍습을 계속 이어나가기 바라 면서 글을 맺겠습니다.

글 연옥
사진 리영철



상 식

면역력을 평가하는 방법

항상 감기를 달고다닌다. 늘 피곤해한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위장관이 약하다. 입안궤양이 있다. 피부가 좋지 못하고 머리 카락이 쉽게 빠진다. 코염, 천식이 반복 된다. ...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증상들을 면역력과 결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해에 감기를 3차이상 앓고 특히 계절이 바뀌면서 온도가 변할 때 쉽게 감기에 걸리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볼수 있다. 감기를 한주일 심지어 열흘이상 계속 앓게 되면 기관지 염, 폐염으로 넘어간다.

조금만 일을 해도 피로감을 느끼고 하루에 9시간을 초과해서 잠을 자고도 여전히 졸리 면 면역력이 떨어진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하

면서도 정신이 집중되지 않고 쉽게 분산된다.

상처가 천천히 아물고 또 쉽게 감염되거나 어디에 부딪친 후 그 어혈이 오래 남아있는 것 역시 면역력이 약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위장관질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 실례로 집에서 식사하지 않고 외부에서 무엇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 들은 일없는데 자기만 배가 아프거나 심한 경우에 게우기, 설사까지 하는것을 들수 있다.

이몸출혈이 있거나 늘 입안궤양이 생기고 이발을 닦을 때 이몸에서 쉽게 출혈하는것, 피부가 거칠고 어두우며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칼이 쉽게 빠지는것을 면역력과 결부하여 생각할수 있다.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염이나 천식 증상이 반복되어 발작하거나 폐기능이 약해 지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몸상태를 잘 관찰해보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제때에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아보는것이 좋다.

* * *



고국원왕릉



고국원왕릉벽화

일명 안악3호무덤이라고도 불리우는 고국원왕릉은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자리잡고있다.

4세기후반기에 만든 고국원왕릉은 인물풍속도를 그린 결간이 있는 무덤으로서 그 규모에서나 벽화내용의 풍부성에서 으뜸가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무덤무지는 방대형이며 그 크기는 남북 약 33m, 동서 약 30m, 높이 약 6m이다.

무덤무지자체도 크지만 산위에 자리잡는데다가 무덤과 산이 한덩어리처럼 되어있어 그 모습은 산악처럼 웅장하다. 무덤칸

은 문칸, 앞칸, 앞칸동서의 두결간, 안칸, 회랑 등으로 이루어졌다.

벽화는 돌벽위에 직접 그렸다. 문칸에는 이 무덤에 묻힌 왕을 호위하는 위병을 그렸으며 앞칸에는 의장대와 수박희, 음악

과 무용 등의 장면들을 그렸다.

매개 벽화들은 그것을 그린 솜씨들이 서로 다르다. 벽화중에서 특히 잘된것은 백라판을 쓴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림들이다. 주인공화상은 신분의 높이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여 그리는 품계법을 형상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우리 나라 인물화의 오랜 연원을 잘 보여주고있다.

행렬도 역시 여러줄의 복잡한 종대행렬이 겹치는 상태를 부감도식으로 능숙하게 표현하였다. 이 그림은 회화기법이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



고국원왕릉벽화들의 일부

의것임을 과시할뿐 아니라 250여명이 넘는 등장인물의 수와 화면의 크기, 복잡하고 다채로운 내용을 반영하고있어 우리 나라 무덤벽화중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물론 세계

미술사상 손꼽히는 대작으로도 평가되고있다. 고국원왕릉은 땅속에 각이하게 가공한 돌로 무덤칸을 쌓고 흙을 덮은 고구려돌칸흙무덤의 전형일뿐만 아니라 높은 건축술

과 회화술, 고구려인민들의 생활 풍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현재 국보로 보존 관리되고있다.

글 연옥

유모아

《몽감한》 소년

아버지의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나온 소년이 사기가 나서 거리로 질주했다.

마침 수리공 두사람이 앞에 있었는데 한사람은 망홀뚜껑을 열고 그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가로등에 올라갔다.

소년은 사기가 나서 소리쳤다.

《겁쟁이들! 내가 뭐 자기들을 깔아뭉갠가봐 그러나?》

* * *





이름난 서예가 한석봉

한석봉(1543-1605년)은 16세기-17세기에 활동한 이름난 서예가였다. 그의 이름은 한호였으나 사람들속에는 한석봉이라는 호로 널리 알려졌다.

1543년 개성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서당에 다니었으나 집안살림이 구차하여 어머니가 떡국장사를 하여 학비를 보장하였다고 한다.

이런 속에서도 한석봉은 이름난 서예가가 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었다.

한석봉은 집이 가난하여 먹고
종이를 사서 쓰기가 어려웠으므
로 밖에서는 너럭바위우와 나무
앞에, 방에 들어와서는 사기
그릇에 먹으로 글씨를 써서
익히고 또 익히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글을 썼던지 어느날 소낙비가 쏟아부었는데 솥으로 바위와 나무잎에 쓴 글이 골안에 먹물처럼 도랑처럼 흘러 골짜기에는 《먹적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유명한 서예가로 되기까지에는
어머니의 교양과 노력이 깃들
어있었다.

아들의 재능을 기특하게 생각하고있던 어머니는 자식을 훌륭한 명필로 키우리라 결심하고 10년을 기한으로 먼곳에 있는 친척벌이 되는 글방훈장에게 떠나보내었다.

7년째 되는 어느날 한석봉은 그만하면 글씨를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반가와할줄 알았던 어머니는 오히려 그가 3년을 마저 채우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데 대하여 의아해하면서 배운 글씨를 시험쳐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불을 끈 캄캄한 방 안에서 아들은 글을 쓰고 어머니는 떡을 썰게 되었다. 얼마후 불을 켜니 어머니가 썰 떡은 모두 가지런하였으나 한석봉이 쓴 글은 고르롭지 못 한데다가 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오래간만에 만난
아들이었지만 호되게 꾸짖고
그를 다시 떠나보내었다.

어머니의 굳은 당부를 새기고 그는 이번에는 수도로 올라가 당시 유명한 명필로 소문난 사람을 찾아갔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글씨를 배웠다.

이렇게 글씨공부 3년을 더 하여 스승의 높은 평가를 받은 다음에야 그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그가 어머니앞에서 쓴 글씨가 하나같이 정교하였다.

이처럼 한석봉은 자신의 꾸준한 노력과 어머니의 엄격한 교양속에서 서예가로 성장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력대 서예가들은 물론 다른 나라 명필들의 글씨도 깊이 연구하여 마침내 독자적인 필체를 창조하였다.

그의 글씨는 천군만마(천명의 군사와 만마리의 말이라는 뜻)로서 많은 군사와 말이 움직이는것을 형상한것)가 내달리는듯 기세차고 수천개의 활과 쇠뇌를 끌어당긴듯이 힘찼다. 그리하여 누가 보든지 그의 글씨는 명백히 구별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글씨는
우리 나라에서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한석봉의 글씨는 현재 개성의 서화담신도비, 선죽교비, 남대문 현판 등 여러곳들에 전해지고 있다.

글 김수정





동해명승 통석정

강원도 통천군 읍의 바다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통석정은 절벽과 바위모양 하나하나가 기묘묘한 자태를 이루고있어 예로부터 우리 나라의 이름난 바다가 명승지로 되어왔다.

통석정은 화산작용에 의하여 지표면으로 뿔어나온 현무암이 랭각응축되면서 여러 각으로

쪼개진 후 오래동안 바다물과 비바람에 씻기우고 깎이워 이루어졌다.

바다기슭을 따라 늘어서있는 모난 돌기둥들의 자세는 각각으로서 하나같이 희한한 모습을 이루고있다. 그가운데서 곧바로 서있는것을 립총, 앓아있는 모양을 나타내는것을 좌총,

누워있는 모양을 이룬것을 와총이라고 한다. 립총들가운데서 높이가 15~20m, 다각형 한면의 길이가 약 90cm 되는것도 있다.

이 고장 사람들은 통석정을 통천금강이라고 부른다.

돌기둥들이 무리로 또는 홀로 수정같이 맑은 바다물속에 뿌리를 박고 선 모양이 기묘하

다. 그런데로부터 옛날 유능한 석공들이 오랜 기간 품을 들여 다듬어서 더러는 묶어서, 더러는 몇개씩 세워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또한 옛날 네신선이 놀고갔다는 사선봉과 통석정의 돌기둥들을 베어 룡궁까지 다리를 놓으려다가 그 아름다움에 끌려 그만두었다는

돌다리와 의종계 서있는 부부암, 거북바위 등 여러가지 모양의 바위들이 있다. 통석정의 해돋이와 은빛색의 달빛으로 물들여진 통석정의 밤경치는 특이한 황홀경을 이룬다.

통석정벼랑에 등지를 틀고있는 바다제비, 바다오리 등 여러 종류의 새들이 날아오는 풍경,

눈서리와 세찬 바다바람을 이겨내며 바위틈에 억센 뿌리를 내리고 사철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소나무들, 세차게 밀려오는 물결이 돌기둥에 부딪쳐 수천갈래의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은 통석정의 경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글 김대철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